

한국 토종약초의 효능과 이용

최진규

한국토종약초연구학회 회장

서론

주변에 흔한 풀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약초요법은 민초(民草)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질병을 이겨내기 위하여 오랜 경험을 통해 다듬어 온 전통 의학의 한 갈래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손쉬운 질병치료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요법은 대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두가지 약초만을 사용하므로 단방(單方) 또는 독방(獨方) 등으로 부르고 민간요법에서 쓰는 약은 초약, 민약, 민간약, 민속약 등으로 부른다.

민간요법은 민중의 지혜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인 만큼 체계적인 철학이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가난하고 무식한 민초들 사이에서 생겨나 민초들 가운데 퍼져있는 의학인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하찮은 것으로만 보이는 풀이나 나무들이 현대의학이 손을 든 난치병을 쉽게 고쳐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민중의술의 신비로움과 선조들의 독특한 의료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약초를 이용한 민간요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 지고유의 질병치료법이 존재한다.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약초요법을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로 보고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암, 당뇨병, 고혈압 같은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토종약초를 써서 좋은 효험을 보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이땅에 좋은 약초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증거하여 준다. 주변에 있는 풀을 약으로 이용하는 치료법은 '진리는 가깝고 평범한 곳에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 준다.

우리나라에는 5천 종쯤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는 현대의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약초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약초들이 모여 있는 곳인지도 모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암, 당뇨병, 간경화증, 백혈병, 고혈압, 심장병 등을 치유하거나 호전시킬 수 있는 수많은 약초들이 자라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 흔히 자라고 있으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풀이지만 현대의 여러 난치병 치료에 큰 효과가 있는 몇 가지 토종약초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 론

- 1) 미나리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식물인 연삼은 당뇨병 치료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초이다. 뿌리모양이 인삼을 닮았으면서 맛과 향이 인삼보다 부드럽다고 하여 연삼이라고 부른다. 연삼은 당뇨병을 치료하는 효능 말고도 기운을 늘리고 밥맛을 좋게 하며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갖가지 염증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다. 약초를 채취하러 산에 다니면서 연삼 한 뿌리를 캐서 날로 씹어먹고 나면 하루종일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지 않는다. 연삼은 3년에서 6년을 살며 10·11월에 씨앗이 익는다.
- 2) 제주도 특산식물인 말때기나무는 아직 식물도감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희귀식물이다. 말오줌나무나 텃나무를 닮은 이 관목의 잎과 줄기를 제주도의 한 민간의 사는 20년쯤 전부터 신장염과 신부전증 치료에 활용하여 매우 뛰어난 효과를 얻고 있다. 신부전증은 세계의 어떤 의술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치병 중의 최고 난치병이다. 이 난치병을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로 고칠 수 있다면 이 식물이야말로 국가적인 보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서귀포 근처에 이 식물의 군락지가 있다. 이 나무는 꺾꽂이로 대량증식이 가능하다.
- 3) 왕삼은 미나리과에 딸린 식물로 산삼을 능가하는 효능을 지닌 약초이다. 수명이 5백년 이상을 살며 모든 삼중에 임금이라 하여 왕삼이라고 부른다. 왕삼은 거의 만병통치의 효능을 지니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를 복용하면 천하장사가 되어 괴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왕삼은 강원도 화천, 양구, 정선 등 추운 지방의 산꼭대기 능선부근에 드물게 자란다. 왕삼 역시 식물도감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식물이다.
- 4) 남해안이나 제주도의 동백나무에 기생하는 동백나무겨우살이는 항암작용이 매우 뛰어나다. 말기 암으로 진통제 주사를 하루에 열 번 이상을 맞아야 했던 환자가 동백나무겨우살이를 복용하고 즉시 통증이 사라지고 암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사례가 있다. 동백나무 겨우살이는 암 뿐만 아니라 갖가지 신장병, 간질환, 당뇨병 등에도 탁월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 5) 갈매나무과에 딸린 호깨나무는 술독을 푸는데 불가사의한 효능을 지닌 나무이다. 술취한 사람이 이 나무의 잎이나 줄기 열매를 차로 달여 마시면 술이 금방 깨고 숙취가 남지 않는다. 호깨나무는 간에 쌓인 독을 풀고 몸안에 있는 독을 풀어주며 술로 인하여 간, 뇌, 대장 등에 탈이 난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 6) 험한 바위에 붙어 자라는 부처손은 항암작용이 매우 뛰어난 약초이다. 민간에서

이 약초로 말기 암환자를 고친 사례가 있다. 부처손은 항암작용이 뛰어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 부처손은 자원이 풍부하므로 암환자를 치료하는 데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7) 곰보배주라는 풀은 아직 식물도감에도 실려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묵은 논밭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해살이 상복성 식물이다. 이 풀은 천식, 해소, 기관지염, 기침, 갖가지 부인병 등에 뛰어난 치료효과가 있다. 특히 기침을 없애고 가래를 삭이는 작용이 탁월하여 어떤 종류의 기침이나 가래가 나오는 병을 완치할 수 있다.
- 8) 강원도의 깊은 산 속에 드물게 자라는 털해바라기 역시 아직 식물도감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약초이다. 돼지감자를 닮은 이 풀은 뿌리모양이 땅콩을 닮았는데 이 뿌리에 부자나 초오를 능가하는 독성이 있다. 민간에서 이 뿌리를 관절염이나 신경통 치료에 활용하여 큰 효험을 얻고 있다. 아마 부자나 초오 못지 않은 약효를 지녔으리라 생각된다.

결 론

갖가지 공해독으로 암, 백혈병, 당뇨병 등 난치병은 늘어만 가는데 아직 이러한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의료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모든 식품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모든 한약재까지 농약과 화공약품에 오염되어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병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병이 더 심화되기 일쑤인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토종약초들은 공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법으로 연구 발전시킬 가치가 매우 크나, 토종약초를 이용한 치료법이야말로 거래의 토종지혜가 깃들여 있는 진짜배기 민족의학이다. 약초를 이용한 치료법을 오늘에 되살려 현대화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